월/요/광/장

강희숙

출사표(出師表)를 '올리라'

이른바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로 구분 짓게 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던질 출사표라도 있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출사표'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출사표'(出師表)란 전쟁을 위한 출병(出兵)에 앞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의미한다. 모름지기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될 일이고, 정(精)과 성(誠)을 다하여 공손히 '올려야 하는' 글이라고 해야 옳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출사표를 함부로 '던지는' 이들이 도처에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를 염려하게 만든다.

널리 알려진 대로 출사표란 글의 형식은 제갈공명에게서부터 비롯된다.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촉한의 군주 유비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군대를 앞세우고 먼길을 떠나기 전, 제갈공명은 유비의 아들이자 촉의 2대 군주였던 유선에게 우국충정의 뜻을 담은 글을 남긴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하기 어려운 전쟁터로 떠나는 충신의 마음은 그만큼 비장하였을 터, 어린 군주에게 나라를 다스릴 올바른 방책을 담은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올리니, 〈전출사표〉와 〈후출사표〉가 바로 그것이다. 무릇 신하된 자로서 출사표를 읽고서 울지 않는 자는 충신이 아니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 것을 보면, 나라와 백성의 앞날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이라면 마땅히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정치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에게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 어그러진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이 부여되는 바, 모름지기 정치를 하겠노라고 나서는 이라면 그와 같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일, 그 답을 자신의 출사표에 새기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비 후보들이 하는 일은 이 호텔 저 호텔을 기웃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빛내 줄 정치적 실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만 경도되어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때로는 지연에 기대고, 때로는 학연에 기대어 유력 인사의 지원 의사를 얻어냄으로써 천군만마를 얻은 기쁨에 들떠있는 그들, 어제도 오늘도 정치적 실세들의 후광에만 기대어 해바라기를 하고 서 있는 인사들을 바라보는 일은 심히 우울한 일이다. 이러한 우울증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결국엔 심각한 정치 혐오증까지 낳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백성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들 한다. 이는 백성이 곧 주인이요, 군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주인이요, 군주인 백성으로서 우리에겐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것은 내 뒤를 누가 봐주고 있는가를 목 놓아 외치는 후보가 아니라, 힘의 향방에 따라 이합집산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해버리는 얄팍한 정치가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내부의 목소리로, 자신의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후보를 이 나라의 일꾼으로 기용하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후보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만 치닫는 마음을 접고, 어두운 골방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와 백성으로 하여금 물 만난 고기처럼 살맛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적은 출사표를 먼저 올려야 한다.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인내로써 제갈공명을 천하의 주인이 되는 데 필요한 인재로 등용하는 데 성공한 유비는 "나에게 공명이 있음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유비의 고백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수어지교(水魚之交)의 만남을 말하여 주는 것인바, 우리들 백성들 또한 한 마리 물고기로서 마음 놓고 놀고 마실 수 있는 청량한 물줄기를 만나고 싶다.

4월, 한창 물이 오른 수목들은 마음껏 새 잎을 틔우고, 그렇게 마음껏 새로운 꽃송이를 피워 올릴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았으면 한다.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된, 깨끗한 희망의 정치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출사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한다.

〈조선대 국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성주

재정신청제도 정착, 법원 역할 크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된 이래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 틀은 1954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50여 년 동안 지속해 왔다. 이후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오늘날의 형사사법제도가 과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2003년 10월28일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1세기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형사사법제도의 구축을 위원회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형사피해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그 세부 쟁점으로는 ▲인신구속절차의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피해자의 진술권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이었다.

이 중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다. 또 제3의 독립기관인 법원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2002년 8월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건수는 총 112건이나, 그 중 50건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됐다. 나머진 불기소처분 54건, 참고인중지 4건, 수사 중 4건으로 처분되는 등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도 불기소처분이 시정되지 않는 등 헌법소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상범죄를 전면 확대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재정신청제도는 종전의 제도와 다른 점이 있다. 종전에는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해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광주고등법원에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모두 62건에 이른다.

모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이다. 새로운 재정신청제도의 도입으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피고소인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종전의 재정신청제도와 같이 소극적으로 운용된다면 재정신청제도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선입관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심리해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기고

김한호

문학을 사랑하는 국민은 행복하다

학교에는 문학소녀가 없다. 예전엔 책갈피에 네잎클로버나 단풍잎을 곱게 접어두고 시를 읊던 순결하고 감성적인 여학생은 이제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대학 입시를 위해 교과서나 참고서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순수한 동심마저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정서와 교훈을 주는 문학 작품은 멀리하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대중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책보다는 영화나 게임을 좋아하고, 순수문학은 인터넷과 영상문화에 밀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문학이 신세대들에게 관심 밖의 대상이 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작가의 책임도 크다. 독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좋은 작품을 창작하지 못하는 한국문단에도 문제가 있다.

노벨문학상 하나 받지 못한 나라에서 문인들은 수만 명이나 되며, 무슨 문학상은 그리 많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요즘 문인들의 모임에는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고, 머리 희끗한 중년 너머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에는 청소년 시절에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뒤늦게 등단한 늦깎이 문인들이 많다. 문예지의 범람으로 등단이 쉬워지자 정년퇴임한 사람이나 출세한 관료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너나없이 문인이라는 명함으로 문단이 북적인다. 그러다 보니 창작에 전념해야 할 문인들이 작품 활동보다는 문단 정치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나 문학은 우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 그래서 문학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삶과 더불어 변천해 왔다. 우리 조상들은 문학을 통해서 삶의 희비애환을 표출하였으며, 해학과 풍자로 고달픈 삶을 웃음으로 눈물을 닦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상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독서 인구가 감소되고 문학이 쇠퇴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독서나 문화활동보다는 향락 위주의 놀이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영혼을 팔아서 글을 쓴다고 한다. 작가가 느낀 감정의 떨림이 독자들에게 전이되어 독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명작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많이 있음으로써 심성이 고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인들은 문단 활동보다는 작품 창작에 전력해야 한다. 문학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한글로 민족혼이 깃든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책을 많이 읽고, 문학을 사랑하는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문인협회 부회장·문학박사〉

농업용수 오염 언제까지 방치만 할 건가

얼마전 농업 관련 책을 찾다가 김영덕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260곳의 수질이 공업용수에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오렴된 물로 자라난 농작물은 그 또한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이 물을 끌어다 농사짓는 농민들도 건강에 이로울 리 없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이다. 필자가 자랐던 농촌에서 바지를 걷고 논 일을 한 농부가 저녁때 다리가 가렵다 심하게 긁었다. 물의 오염 때문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나마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덜하지만 봄철 갈수기 때는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곡식을 키우는 농업용수는 맑은 물이 필수조건이다.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기르는 농업용수도 중요하다. 도시의 하수, 공장의 폐수 같은 게 함부로 빨려들어가지 않게 잘 막아주기 바란다. 농업용수 오염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류용규·광주시 남구 서1동

유방암 6년새 2배 급증 최대 적은 무관심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나타난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가 여성들의 유방암 급증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예방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2000년에 발병한 유방암 환자가 5천400명에서 2006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암 통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유방암 퇴치를 상징하는 색깔인 핑크색 조명을 밝히는 행사를 갖고 있다.

유방암 세포는 여성호르몬을 먹고 사는데, 최근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바람에 유방암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임신 중에는 여성호르몬이 나오지 않지만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이 계속 나와 위험도를 높인 것이다.

유방암 발병은 폐경이 오는 50대부터 늘기 시작해 60~70대에 최고조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에선 유독 40대 이하 유방암 환자가 많다. 젊은 여성들이 고지방질 위주의 서구식 음식을 더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들 스스로 유방암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국가적으로도 대처 프로그램 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 ▲김경자·순천시 안풍동

사설

광주 노사분규 감소 산업평화 정착되나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노사분규가 전국의 1.7%인 2건에 불과했다. 광주지역 노사분규는 2004년 35건을 고비로 2005년 7건, 2006년 5건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내 어느 지역보다 안정된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9천508일이었다. 2006년 4만126일에서 대폭 줄었고 2004년 11만9천932일과 비교하면 10분의 1 이상 감소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산별교섭 도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노사불안 요인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산업 현장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경영인이 37.3%로 지난해 23%에 비해 훨씬 높았다. 반면 '더 불안할 것'이라는 답변은 23.7%에 그쳤다.

기업들이 광주·전남에 투자를 기피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잦은 노사분규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덧칠된 지역의 과격 이미지가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돼온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주시의 투자유치 규모는 174개 기업, 2조2천527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수도권 기업 등 15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실제 투자가 MOU 대비 60% 선에 그쳐 아쉽지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평화는 더 확산돼야 한다. 광주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지만 과격 이미지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노동계의 극한투쟁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기업과 노동계,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산업평화를 정착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천 임박 도 넘는 탈·불법 행위 엄단해야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탈·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패정치의 악습인 불법선거운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미래를 위해 탈·불법 선거운동을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선관위가 적발한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는 2일 현재 55건이다. 이는 각 정당이 공천을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단속 건수다.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탈·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탈·불법 유형도 다양하다. 금품살포는 물론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지지 호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온갖 탈·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거나 터무니없는 악성루머를 퍼뜨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10만 건이나 발송한 사례까지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탈·불법 선거운동의 대부분은 경쟁이 치열한 통합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특성상 다급한 예비후보들의 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망칠 뿐이다.

각 정당은 탈·불법에 연루된 인물을 절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악습과 폐단을 답습하는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문화를 쇄신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탈·불법선거는 정치문화를 퇴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은 감시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해 탈·불법 선거운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기대한다.

無等鼓

포로감시원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5월 일본군은 한국 젊은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속 모집을 한다. 말이 군속이지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일본 점령지에 억류된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는 '포로감시원'이었다. 징병·징용의 공포에 떨던 젊은이들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속아 대거 지원했다. 이렇게 선발된 3천여명의 한국인 군속은 2개월간 훈련받은 뒤 그해 9월 적도의 이국 땅에 배치됐다.

이들의 운명은 가혹했다. 일본군이 패배한 뒤 포로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전범으로 몰려 처형당하거나 수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운좋게 귀국선을 탔어도 '일제협력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 일본행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보상 한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이 일제에 굴복한 것만은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항일운동은 있었다. 바로 항일결사체인 '고려독립청년당'을 조직하고,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숨겨진 역사가 있다.

일제의 패망이 확실시되던 1944년 12월 29일 깊은 밤.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암바라와의 일본군 부대에서 10여명의 한국인 군속들이 숨죽여가며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했다. 이활이 당수를 맡았으며, 출신 지역별로 책임자도 선출했다.

다음해 1월 초 청년당의 핵심인 민영학과 손양섭, 노병한이 싱가포르 전속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반발, 일본군 형무소장과 군납업자를 살해한 뒤 자결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최초의 항일봉기인 셈이다. 이후 이활 등 청년당 간부들은 일본군에 의해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항일봉기의 주역인 민영학 선생에 대해 국가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독립운동을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